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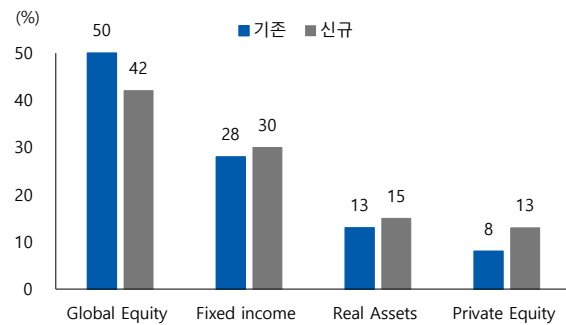


Private Equity, 조연에서 주연으로

1. CalPERS의 Private Equity

- 해외의 기관투자자들은 금리인상 등 긴축정책으로 돌아서는 각국 정부의 정책을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준비
- CalPERS(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는 2021년 하반기부터 공모주식(Public Equity)의 비중을 줄이고, 사모주식(Private Equity) 비중은 작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확대
- CalPERS는 Private Equity를 늘리고, 공모주식을 줄이는 새로운 자산 배분안 채택.

CalPERS는 Private Equity를 늘리고, 공모주식을 줄이는 새로운 자산 배분안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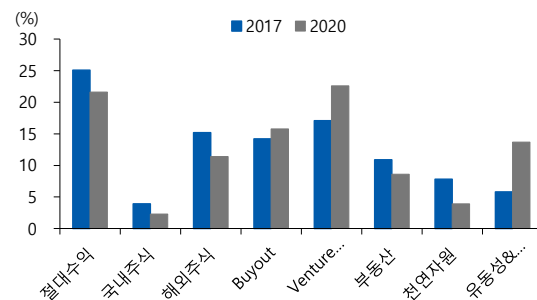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미국 대학기금의 Private Equity

- Private Equity 의 적극적 투자는 하버드대학기금, 예일대학기금 등 대학기금에서 먼저 시작
- 예일 대학기금은 Private Equity 중에서 Venture Capital 선호
- 미국의 대학기금은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장기 수익률을 높여나가기 위한 선택으로 Private Equity 선택

예일대학기금의 Venture Capital 비중을 늘리고, 절대수익고 주식 비중 줄임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CalPERS의 Private Equ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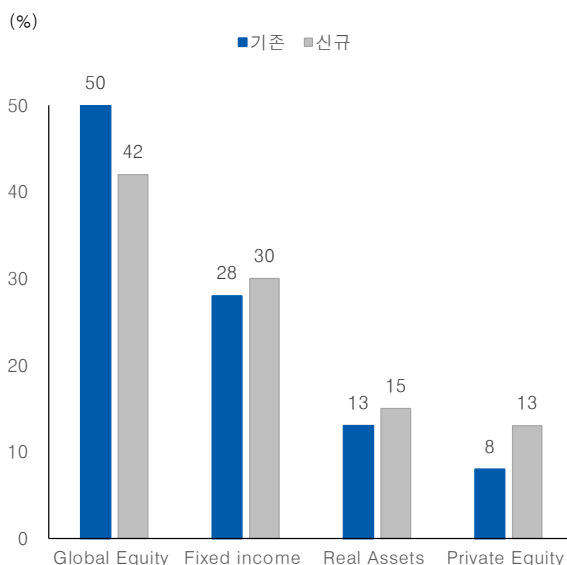
큰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들은 금리인상 등 긴축정책으로 돌아서는 각국 정부의 정책을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준비해왔다. 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기술주를 중심으로 주식 비중 축소 움직임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기관투자자들은 주식 비중을 줄이고, 사모주식을 늘리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의 대표적인 연기금 CalPERS(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는 2021년 하반기부터 공모주식(Public Equity)의 비중을 줄이고 있다. 반면, 사모주식(Private Equity)비중은 작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늘리고 있다.

CalPERS는 2022년 7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자산 배분안을 발표하였다. Global Equity를 50%에서 42%로 줄이고, Private Equity를 8%에서 13%로 늘리게 된다. Real Assets과 Fixed Income 비중도 각각 2%씩 늘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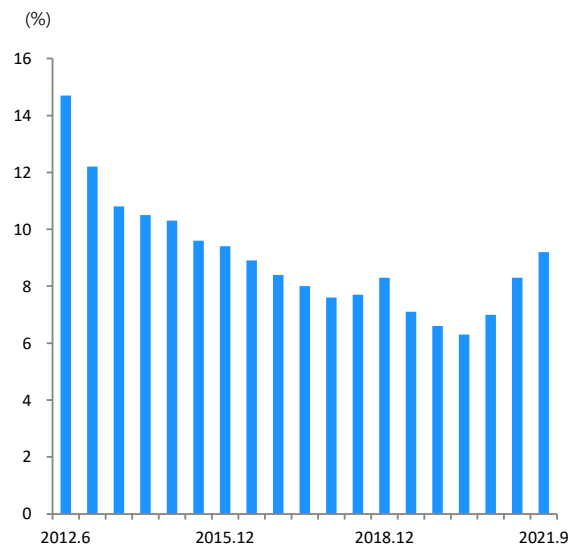
CalPERS는 장기투자·스타트업등의 투자가 가능한 Horizon과 Innovation의 새로운 투자 유형을 신설하였다. 장기적으로 Private Equity 자산의 중요성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이다.

[차트1] CalPERS의 새로운 자산배분안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CalPERS의 Private Equity 비중은 2020년 하반기부터 증가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미국 대학기금의 Private Equ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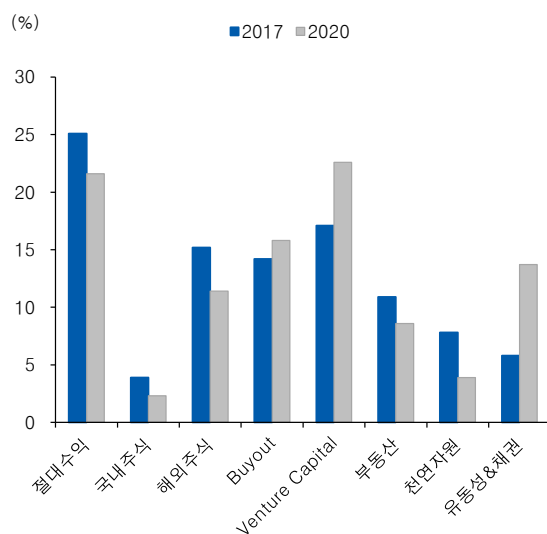
Private Equity 의 적극적 투자는 하버드대학기금, 예일대학기금 등 대학기금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하버드 대학기금은 Private Equity 비중은 2017년 16%에서 2021년 34%로 2배 이상 늘어났다. 같은 기간 Public Equity 비중은 31%에서 14%로 줄어들었다.

미국의 대학기금이 기관투자자들만이 투자할 수 있고, 장기 기대수익률이 높은 Private Equity로 주력 자산을 바꾸는 것으로 보인다.

예일 대학기금도 Private Equity, 그 중에서도 Venture Capital 비중을 크게 늘리고 있다. 대신 Absolute Return과 국내외 주식 비중은 줄이고 있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유동성 보유 비중은 2배 이상 늘어났다. 예일 대학기금은 Private Equity 중에서도 Venture capital의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것이 특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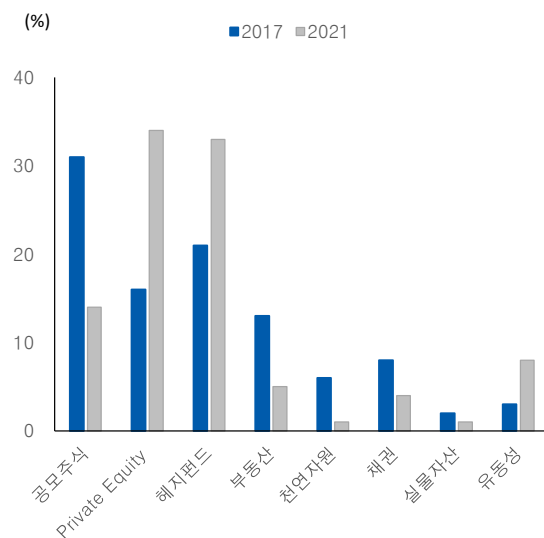
미국의 대학기금은 1980년대부터 Private Equity 투자를 크게 늘리면서, 투자 네트워크와 전문성이 다른 기관투자자들보다 우월해졌다. 미국의 대학기금은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장기 수익률을 높여나가기 위한 선택으로 Private Equity를 선택하였다.

[차트3] 예일대학기금의 자산배분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하버드대학기금의 자산배분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